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5%

3주째 상승세...민주당 지지도는 오름세 멈추고 소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째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일~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10월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2.8%포인트(p) 오른 48.5%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2.1%p 내린 48.3%를 기록, 금·부정행사가 정부의 뜻을 담은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군인 출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당이 발의한 법’이라며 ‘자신들이 법을 발의해놓고 위원회 활동이 불필요하니 예산을 삭감하지는 것은 또 한 번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 부산집회에서 ‘광주인고정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산심의까지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아틱’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당은 지난 30일 일간집계에선 (29.1%)에서 20%대를 기록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60대 이상, 20대, 충청권과 호남, 서울, PK에서 하락했다. 50대, TK와 경기·인천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은 진보층(64.9%→67.1%)에서 60%대 후반으로 상승한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64.9%→65.3%)에서 60%대 중반이 지속됐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3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는 6.3%p에서 9.5%p로 소폭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0.7%p 오른 5.5%로 9월 2주차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0%p 내린 4.4%로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공화당은 0.8%p 오른 2.1%로 다시 2%대로 상승했고, 민주평화당 또한 0.2%p 오른 1.9%로 2% 선에 근접했다.

한편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들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광주 인공지능 · 5·18 예산 지킬 것”

민주당, 국회서 광주시와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인공지능클러스터 조성, 전국에 긍정적 영향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연내 통과에 힘 싣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31일 광주광역시 인공지능클러스터 조성 예산과 내년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시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정책간담회는 지난 상반기 회의에서 논의한 사업 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을 점검·보완하고, 각 시·군에서 추가로 올라온 주요 사업들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다른 지역 회의에서는 없었던,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다. 한국당이 문제 예산이라고

지적한 사업 중에 광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국당에서 100대 문제사업으로 광주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지적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광주에서 R&D(연구개발)사업을 하면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인공지능 연구소와 빅데이터센터도 설립하고,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면 그 효과가 전국에 있는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술효과는 전국이 향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간절히 부

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 대폭 삭감하려는 것 같다”며 “어떤 의미에서 예산마저도 지역적인 편견의 불모가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국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첫 발을 댄 사회통합형일자리와 관련해선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널리 이용돼야 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 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광주만 유일하게 R&D사업의 예산편성을 신청했는데, 그전까지는 별일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AI(인공지능)를 강조하고 나서 한 국당에서 만지를 거는 것 같다”며 “예산은 지키는 것은 광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도 관련있는 문제다. 짧은 시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 박지원, ‘黃 영입1호’ 박찬주 제외에...“한국당, 계속 똥볼 찬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자유한국당이 ‘공판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제영입 명단에 올렸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제외한것을 두고 “한국당이 요즘 계속 ‘똥볼’을 차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장도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깊고 군인도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는 분이어서 아마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죽이 맞은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을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표창장을 준다, 포상금 50만원 읊준다, 대통령을 발가벗겨서 인형극 난리를 친다”며 “더욱 웃기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걸린 의원들의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자’며 합장을 했다. 그러다

놓고 여론이 나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빠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복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아무튼 황교안 대표는 그럴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복은 천복이 아니면 이런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